



강북구의회
GA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3년 12월 23일
(월요일)

동북일보 4면

이순영 의원, 영유아복지 시범사업 지정 건의안 제안

“취약 영유아의 복지안전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

강북구의회 이순영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지역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지속을 위한 영유아복지 시범사업 지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했다.

이 의원은 영유아에 대한 투자는 사회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특히 공정사회의 전제조건인 어린시기의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의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다른 어느 것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며 영유아기의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부족한 현실에서 영유아통합지원센터는 공적 전달체계에서 보호하지 못하는

영유아가정을 위해 그 역할을 보완해오고 있고, 영유아복지에 대하여 통합적 지원과 전문적 개입으로 우수한 성과를 남긴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적근거 미비와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라는 이유로 매년 폐쇄위기를 겪고 있으나 갈수록 악화되는 지자체의 재정여건으로는 단독지원이 어려운 현실이므로, 취약 영유아의 복지안전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면서, 이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는 사각지대의 취약영유아를 해소하고 전문성이 소실되지 않도록 지역 영유아통합지원센터를 보

건 복지부 영유아복지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제안설명을 해 만장일치로 건의가 채택되었다.



〈최동수 기자 cds0012000@hanmail.net〉

강북신문 5면

영유아복지 시범사업 지정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순영 의원이 지역내 영유아통합지원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영유아복지 시범사업으로 지정해달라는 건의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이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자라나는 영유아에 대한 투자는 사회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특히 공정사회의 전제조건인 어린시기의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의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다른 어느 것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영유아기의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부족한 현실에서 영유아통합지원센터는 공적 전달체계에서 보호하지 못하는 영유아가정을 위해 그 역할을 보완해오고 있고, 영유아복지에 대하여 통합적 지원과 전문적 개입으로 우수한 성과를 남긴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취약 영유아의 복지안전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라며 “사각지대의 취약영유아를 해소하고 전문성이 소실되지 않도록 지역 영유아통합지원센터를 보건복지부 영유아복지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중앙정부의 예산 지